

2022 항저우 장애인포게임 광주·전남 선수단 빛났다

광주 20개·전남 11개 메달 획득...한국 '종합 4위' 견인 광주시청 탁구팀 8명 전원 메달...전남 론볼 황동기 금

지난 22~28일 열린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한 광주·전남 선수단이 30여개의 메달을 따며 대한민국 종합 4위 달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주시 선수단 20명(9개 종목)은 금 7개·은 6개·동 7개 등 총 20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광주시청 장애인 탁구실업팀은 감독·코치·선수 등 8명 전원이 국가대표로 발탁돼 12개의 메달을 거머쥐었다. 박진철은 2등급 단식과 서수연과 혼성 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장애인아시아게임에 이은 대회 2연패를 기록했다. 서수연도 1~2등급 통합 단식에서 금메달을 추가로 땀으며 남기원 1등급 단식 은메달, 김영건 4등급 단식 은메달, 김경길 4등급 단식 동메달, 김성욱 7등급 단식 동메달을 각각 따냈다.

사격의 박승우(광주시청)는 사격 R4(공기총 입사) 부문에서 은메달을 따며 첫 출전 대회에서 메달을 거머쥐었다. 양궁의 김옥금(광주시청)은 결승전에서 연속 10점을 쏘며 양궁 W1 혼성 부문 금메달을 명중했다. 아시안게임에 첫 출전한 론볼 정재홍(광주장애인론볼연맹)과 보치아 강선희(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정 김세정(광주장애인체육회)이 은메달, 휠체어펜싱에서는 최건우(광주시장애인펜싱협회)가 사브르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 선수단 20명은 8개 종목에 출전, 총 11개의 메달을 따냈다. 론볼 경기에서 전남장애인론볼연맹의 황동기·정상철이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동기는 론볼 혼성 B6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했으며, 정상철은 혼성 B8에서 김승희와 짝을 이뤄 동메달을 따냈다. 이어 송명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두이와 함께한 혼성 B7에서 은메달을 합작했다. 배드민턴에서도 남자 단식 WH2에 출전한 유수영(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일본 선수에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유수영은 권현아(한국장애인고용공단)와 짝을 이뤄 혼합복식과 이삼섭과 짝을 이뤄 남자복식에서도 각각 동메달을 합작했다. 또 여자겨울(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6일 열린 여자 단식 WH2 경기에서 중국 선수와 겨뤄 아쉽게 패하며 동메달을 수확했다. 펜싱에서도 백경혜(한전KDN)가 권효경과 조은혜, 조예진과 한 팀이 돼 혼성팀을 이기며 동메달을 따냈다. 사격에서는 여자 SH1 R8 50m 소총3자세에 출전한 이윤리(한국농어촌공사)가 3위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서수연(왼쪽)과 박진철이 28일 중국 항저우 공수 캐슬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탁구 혼성복식 XD 4 결승에서 승리한 뒤, 시상식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과녁을 맞혀라

2024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오늘부터 광주국제양궁장 광주·전남 12명 출전...유일한 중학생 박주혁 무한도전 주축

2024 파리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2024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이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다. 2024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는 지난날 경북 예전에서 진행된 1차 선발전을 통과한 리커브 남녀 각 64명과 컴파운드 남녀 각 16명이 출전한다. 이번 2차 선발전은 30~11월1일 토너먼트, 리그전으로 순위에 따른 배점을 부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일 경기 후 1차 선발전 결과와 1회전(48점), 2회전(64점), 3회전(64점) 결과를 합산해 리커브 남녀 32명과 컴파운드 남녀 8명을 먼저 선발한다.

이어 11월 2~3일 4회전(32점), 5회전(64점)을 치러 32명 선발전 역배점을 합산한 총점 합계로 리커브 남녀 각 20명, 컴파운드 남녀 각 4명씩을 선발하게 된다. 2023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현 국가대표 선수들은 내년에 열리는 3차 선발전부터 출전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선발전에 광주·전남 공사 총 12명이 출전한다.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광주 양궁은 여자부에서 태극마크 탈환에 나선는 오예진(광주여대·14위), 최민선(광주시청·19위)를 비롯

해 김민서(광주은행 테넨양궁단·27위)·이수연(광주여대·63위), 남지현(광주체고·44위), 조수혜(광주체고·64위)가 2차 판문에 도전장을 던졌다.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무더기 메달을 따내며 양궁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전남은 남수현(순천여고·3위), 서보은(순천대·11위), 이은경(순천시청·21위), 조한이(순천여고·29위)가 상위권에 포진, 태극마크를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남자부에서는 현 국가대표이자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운(남구청·6위)이 도쿄올림픽 탈락의 아쉬움을 털고 파리행 도전의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대회 통틀어 1차 선발전을 통과한 유일한 중학생 선수 박주혁(광주체고·64위)의 '무한도전'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6회 광주시체육회장애 육상경기대회가 3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지난 대회 모습. <광주시체육회 제공>



쇼트트랙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
월드컵 2차 대회 1500m 우승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사진)가 월드컵 2개 대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김길리는 29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3-2024 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여자 15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 2분34초588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1차 대회 여자 1000m 우승자인 김길리는 이번 대회에서도 금빛 질주를 이어가며 월드컵 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김길리는 초반부터 선두 자리를 지키며 레이스를 주도했다. 그는 결승선 4바퀴를 남기고 속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경쟁자들의 추격을 여유 있게 따돌리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었다.

광주 육상 꿈나무 발굴한다...31일 초·중 육상대회

김국영 사인회도

광주지역 육상 꿈나무를 발굴하는 대회가 펼쳐진다. 광주시체육회는 3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6회 광주시체육회장애 육상경기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광주지역 초·중학교 학생선수 300여명이 출전해 100m 등 54개 세부종목에서 기량을 펼친다. 또 1·2·3 등 순위권의 학생은 전문 엘리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은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운동처방 방법도 지도한다. 대회 현장에서는 지난 3일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육상 400m 계주에서 37년 만에 동메달을 수확한 김국영(광주시청)의 사인회도 진행된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모든 운동의 기본인 육상을 활성화 시켜 엘리트 스포츠 저변을 넓히는 것이 이번대회의 목표이다"며 "대회를 통해 선수층을 폭넓게 확보하고 지역 엘리트 꿈나무를 발굴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드림패럴림픽 행사에서 휠체어배드민턴 종목을 체험하고 있다. <전남장애인체육회 제공>

장애인스포츠 체험하고 인식 개선 전국장애인체전서 '드림패럴림픽'

휠체어배드민턴·보치아 등 내달 3~7일 목표종합경기장서

오는 11월 초 전남에서 펼쳐지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드림패럴림픽이 열린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연계한 드림패럴림픽(스포츠체험형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드림패럴림픽은 지난 2019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및 장애인스포츠 체험을 통해 장애인식 제고와 통합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체험 시 장애인스포츠 은퇴선수 출신 강사가 직접 지도해 참가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해 장애인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행사 장소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지 장소인 목표종합경기장 인근 장소이며,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운영된다. 체험 종목은 휠체어배드민턴, 보치아(중장애인 종목), 쇼다운(시각장애인 종목) 등이다. '장애인스포츠 인권 페스티벌'도 운영해 참여 학생과 시민들의 장애인 인권 의식에 함께 높일 계획이다. 전남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 동안 전남을 찾는 많은 도민과 학생, 방문객들이 대회와 함께 장애인스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드림패럴림픽을 운영한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시수
2관	30일
3관	용감한 시민
4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5관	30일, 유엔미안미
6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9관	용감한 시민, 시수, 발리와 용감한 녀석들: 황금 달걀 구조대
7관(씨네커피)	엑소시스트: 믿는 자, 더 던 2
8관(씨네커피)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화란, 유엔미안미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세종술로이스츠 & 이안 보스트리치 '일루미나시옹'
일시: 2023-11-12(일) 17: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